

世祖朝 新鑄의 ‘戊寅字’와 그 刊本

— 주로 그 鑄字의 考證을 中心으로 —

千 惠 鳳*

I

世祖는 비록 義를 지 못한 計略과 手段으로 그의 조카 端宗에게서 大寶를 篡奪했지만, 그러나 文治面에 있어서는 父王인 世宗이 構築해 놓은 文化의 기틀 위에서 그 爛熟을 보게 했던 바 실로 큰 業績을 남겨 놓은 王이었다. 그의 文治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손꼽아야 할 偉業은 刊經都監을 設置하고 正音으로 釋家經論을 譯解·刊行·頒施하여 朝鮮王朝 全代에 걸쳐 士類들이 諺文이라 賤視했던 우리 글의 命脈을 이어 發展시켜 준 點이라 하겠으나, 또한 文化興隆의 原動이 되었던 金屬活字를 여러차례 鑄造하여 印書廣施했던 業績도 결코 그에 못지 않는 偉勳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일찌기 世宗朝에서 16年(1434) 7월에 甲寅字를 新鑄할 때 經筵所藏의 ‘孝順事實’ ‘爲善陰隲’ ‘論語’등을 字本으로 한 以外の 不足字에 대하여 일일이 精寫하여 20餘萬字를 ‘範銅爲字’하는데 ‘寄與하였고’¹⁾, 또 同王 18年(1436) 7월에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 印出하기 위해 丙辰大字를 新鑄할 때도 그 綱의 大字를 親書하여 ‘範鉛爲字’하는데 크게 貢獻하였다²⁾. 이러한 그의 鑄字方法에 대한 山 經驗은 바로 即位하던 해(1458)에 乙亥字³⁾를 손쉽게 鑄成케 했고 이어 同王

* 成均館大學校 文科大學 副教授

- 1) 宣德九年(世宗 16, 1434) 九月日 金鑄拜手稽首敬跋 參照.
- 2) 正統三年(世宗 20, 1438) 戊午冬十一月日 柳義孫序 參照.
- 3) 成俔 撰, 慵齋叢話 卷7 活字條.

3年(1457)에 丁丑字 그리고 同王 11年(1465)에 乙酉字⁴⁾를 鑄造케 하여 文運振作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그 中 丁丑字⁵⁾는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儒門士類 所撰의 礎典에 未傳되어 하마터면 그의 偉勳이 빛을 보지 못할번 했던 것을 1967년에 筆者가 考證하여 鑄字系譜에 追載했지만, 이렇듯 그의 功이 무색하게 될번 했던 것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이듬해인 4年(1458)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鑄字本이 刊行되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그것에 관하여 살펴 본적이 없는 듯 하다. 이것도 정녕 그 記錄이 未傳된 때문일 것이다.

筆者가 問題의 鑄字로 찍혀진 刊本 1種이 韓國鑄字系譜에 未收된 새로운 것임을 알고 깊은 關心을 갖기 시작한 것은 7個餘載前의 일이다. 그러나 그間 文獻的 考證을 위해 機會있을 때마다 各種의 資料를 涉獵해 보았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中 千萬 뜻밖에도 지난해 여름에 또 한 種의 同鑄字 所印의 完本이 나타남으로써 그 윤곽이 잡혀지게 되었다. 물론 그 活字의 細部的인 諸問題에 관하여는 앞으로 時日을 두고 계속 研究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2種의 鑄字本이 刊行時期가 確實한 新發見에 系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므로 다음에 그 大梗을 적어 韓國鑄字系譜의 한 모퉁이를 기워보고자 한다.

II

이 鑄字本 研究의 發端은 正確하게 말해서 1966年 10月 13日부터 18日까지 서울大學校 開校 20周年을 紀念하기 위해 開催하였던 同校 圖書館 所藏의 貴重圖書展示會에서 因緣한다. 이때에 展示된 圖書의 目錄은

4) 上揭書, 卷7 活字條.

5) 拙藁, ‘丁丑字攷’, 歷史學報 第35·36合輯(1967) pp. 269~291.

그 當時 이미 刊行되어 널리 配布되고 있지만, 그 中 '活字印刷史料'의 '丙辰字'아래를 보면⁶⁾ 李純之와 金石梯 共受命編의 '交食推步法' 鑄字本 1冊(105張)이 大字는 丙辰字(?) 中·小字는 初鑄甲寅字로 世祖 3年(1459)에 刊行되고⁷⁾, 그 版式이 四周單邊 半葉匡郭 크기 27.5×18.6cm 每半葉 9行 每行列 大·中字 14字·小字 19字·註雙行에 白口 上下內向黑魚尾로 記述되어 있다. 이것은 이보다 한해 앞서 1965년에 發行된 '奎章閣圖書 韓國本總目錄'에 있어서 이미 그 大字를 丙辰字로 적고 있으며⁸⁾, 그 後 다른 文獻에서도 이를 無批判의으로 踏襲 轉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의 標題는 正確하게 말해서 '交食推步法假令'이며 上下로 分卷된 單冊이다. 內容은 日月의 交食에 관하여 쓴 天文書이며, 그 樞要的인 說明은 同書에 收錄된 '天順二年(世祖 4, 1458) 正月日 嘉靖大夫禮曹參判修文殿提學臣李純之奉教序'의

'交食推步法及算法歌詩 皆我世宗大王所製也 蓋授時曆經立成諸數浩繁 不便於觀覽 且日出入 則以北極出地高下 隨處各異 而書雲觀只依中朝大統曆 日出入用之 極爲疎闊 故軫慮精思 先測定我國漢陽北極出地三十八度少弱 參考其二至晷影 推求得日出入之分 又於立成 推演其數 作爲新術 其求盈縮差·遲疾差·加減差·日出入分·晨昏分·半晝分 定限行度 冬至赤道日道黃道日度之法 皆不用立成而直求之 極簡且精 莫知端倪 誠千古未有之…… 臣等退作假令 并著註解以進 於是 睿斷筆創定之'⁹⁾ 云云한 글 가운데서 簡明하게 파악될 수 있다. 즉 世宗 때 종래 使用해 오던 中國의 諸曆書가 우리에게 맞지 않음을 알고, 먼저 우리나라 漢陽北極의 出地가 38度에 조금 弱한 것을 測定한 다음 冬至와 夏至의 해그림자와 해가 뜨고 지는 分을 推求하는 한편 授時曆立成에서 數를

6)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編, 貴重圖書展示會 展示圖書目錄. 서울, 1966. p. 6

7) 世祖 4年(1458)의 誤記임.

8)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附設東亞文化研究所 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1965. 子部 天文類 p. 539.

9) 東文選 卷94 序中에도 同 奉教序가 收錄되어 있음.

推演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새로운 術法을 짓고 또 그 法則을 외우기 쉽게 算法歌詩를 마련하였는데, 本書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假設을 짓고 註解한 것에 該當한다. 그 中 算誦을 위한 歌詩에의 註解는 ‘算學發蒙’의 篇名으로 卷首에 수록되고, 이어 推步의 新術法이 卷上·下에 담겨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注目케 하는 사실은 해와 달이 交食할 때 차고 줄어지는 差, 빠르고 더딘 差, 더함과 줄음의 差, 해 出沒의 分별, 새벽과 저녁의 分별, 半晝의 分별, 冬至의 赤道 日道 黃道 日度法 등을 모두 立成에 의하지 않고 바로 測定하고 計算해서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整理해 놓은 點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 책을 찍어낸 活字中 大文 所印의 그것이 도대체 무슨 活字인가 하는 點이다. 活字中 中·小字는 世宗 16年(1434)에 鑄造한 初鑄甲寅字임에 아무도 異議를 提起치 않을 것이나, 大字 所印의 活字를 丙辰字로 鑑定한 데에는 重大한 過誤가 指摘되고 있다. 그 當時 筆者는 展示場에서 그것이 丙辰字가 아님을 지적 해주고 그뒤 高麗大學校圖書館 藏書閣 등을 비롯한 個人所藏의 丙辰字本을 鑑定할때도 또한 그에 대한 再檢討의 必要性을 強調한바 있었다.

丙辰字는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 찍어 내기 위해 그 中 綱字를 晉陽大君孫(世祖)¹⁰⁾로 하여금 쓰게하여 字本으로 삼고 世宗 18年(1436)에 鑄成한 金屬活字이다. 따라서 이 鑄字로 찍어낸 책은 그 ‘資治通鑑綱目’ 뿐인듯 그 現傳의 不完帙本 또는 零本을 日本內閣文庫¹¹⁾ 高麗大學校圖書館 藏書閣을 비롯한 金完燮 柳時溥 등 諸氏 所藏에서 實査하였을 뿐, 同鑄字 所印의 다른 책은 아직까지 본 일이 없다. 그 ‘資治通鑑綱目’의 刊行은 同書 所添의 同王 20年(1438) 11月 柳義孫序에 의하면 그 해 末이 아니면 늦어도 翌年初까지에는

10) 世宗의 第二子로서 初封이 晉平大君이고, 그뒤 威平 晉陽 首陽의 차례로 改封하였음.

11) 拙著, ‘內閣文庫의 韓國古活字本에 대하여’, 書誌學 第3號(1969) 丙辰字本 pp. 50~52.

完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活字의 特徵은 最初로 鑄造된 特大字이며 '範鉛爲字'인 點에 있다. 그 特徵中 크기에 있어서 第一 큰 活字는 세로가 3.0cm 程度가 된다. 그러나 한편 그 大小의 差異가 좀 甚해서 아주 작은 活字는 세로가 1.5cm 程度의 것도 있다. 말하자면 最初로 鑄造된 大字인 만큼 大小의 均衡이 잡혀지지 않은 金屬活字라고 評할 수 있다. 이렇듯 그 大小에 있어서 差異가 좀 甚한 편이지만 主로는 2.0~2.1cm의 活字가 많으며, 가로는 3.0cm가 最大의 것이 된다¹²⁾.

한편 이 '交食推步法假令'의 大字는 첫눈으로서도 丙辰字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또한 字樣이 다름을 얼른 鑑識할 수 있다. 그 中 活字의 크기는 세로가 1.8cm에서 1.2cm를 出入하고 있으나 主로는 1.7~1.8cm가 많고, 가로는 2.0cm가 最大의 것이 된다. 대체로 그 크기가 均整된 活字이다. 이것만으로서도 兩者의 다름은 넉넉히 가름될 수 있는 것이나, 보다 具體的인 實證을 提示해 주기 위해 兩活字本 中에서 同一한 特定字를 골라 그 크기를 測定하여 比較해 보면 아래와 같다.

字 區 分	交食推步法假令		資治通鑑綱目	
	세로(cm)	가로(cm)	세로(cm)	가로(cm)
以	1.7(강)	1.8(약)	1.7	2.9
月	1.8(약)	1.2	2.1	1.9
十	1.6	1.8	2.0	2.3
爲	1.7	1.8	2.0	2.7
其	1.8	1.8	1.9	2.6
周	1.8(약)	1.6(강)	2.1	2.3
度	1.7	1.9(약)	2.0	2.8
齊	1.8	1.9	2.0	2.8
明	1.8	1.8	2.0	2.5
治	1.7	1.7	2.0	2.4
秋	1.7	1.9	2.1	3.0

12)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は 初刊以後도 中宗·明宗年間에 大字는 倣丙辰木活字 中·小字는 磨滅된 初鑄甲寅字混入補字를 사용하여 찍어낸 것이 있고, 宣祖初期에 있어서도 역시 大字는 倣丙辰木活字 中·小字는 再鑄甲寅字를 사

確實히 ‘交食推步法假令’의 大字는 丙辰字에 比하여 크기가 작고 均整된 鑄字이다.

字樣은 丙辰字가 圖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字劃을 바르게 그어 별로 버릇이 없고 筆力에 迫力이 없이 옆으로 퍼진 楷書體라면, 이 ‘交食推步法假令’의 大字는 圖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當時 流行되었던 鷗波 松雪體의 특이한 버릇이 걸드려져 있으며 筆力이 사뭇 생생한 네모꼴의 字體라고 여겨진다.

이와같은 簡單한 比較考察을 통해 보더라도 本 ‘交食推步法假令’ 大文 所印의 活字를 서울大學校開校 20周年紀念 開催의 ‘貴重圖書展示會目錄’과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등에 있어서와 같이 丙辰字로 매김함이 옳지 않음을 곧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鑄字本이 언제 編纂·刊行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世祖 4年(1458) 正月에 李純之가 쓴 ‘交食推步法假令序’ 中에 대략 이러한 骨子の 글이 담겨지고 있다.

世祖가 亂을 물리쳐 反正하고 大統을 繼承하여 治道の 기틀을 굳건히 하자 어느날 自己(純之)에게 算術은 六藝의 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學者는 이를 마땅히 익혀야 하는 것이나 元老級 文士라 하더라도 舉皆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中에서도 日月交食은 一大의 天變之事인데 그것의 推步方法을 모르고 있으니 學業이 이토록 不精함을 늘 可笑롭게 여겨 왔다고 指摘해서 말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天文 地理 醫藥 卜筮의 諸理數書는 모두 指南을 만들어 頒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學習케 하려 하는데 그 中 특히 曆法은 바로 家業이 되는지라 비록 王世子

용하여 적어낸 것이 있다. 이 2種의 後刊本에 있어서도 大字는 丙辰字와 識別하기 어려운 程度로 그 字樣과 크기가 서로 같다. 다만 字劃이 交叉 또는 接續되는 곳에 칼자국의 痕跡이 보이며, 間或 字劃의 太細가 코르지 않고 字劃에 缺이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字樣과 그 크기만은 이 後刊本에 의해서도 丙辰字의 特徵을 알아낼 수 있다.

라 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암된다고¹³⁾ 極力 強調하면서,

‘爾純之在世宗朝 專承曆法之事 可與金石梯 先於世宗所製交食推步法及算誦 作假令註解以啓’

와 같이 下命하였다. 李純之는 世宗 때부터 曆法에 관한 일을 專擔하여 造詣가 깊었기 때문에 金石梯와 더불어 世宗 때 整理해 놓은 ‘交食推步法’과 ‘算誦’에 假令을 짓고 註解를 붙이도록 命했던 것이다. 그 때가 世祖實錄 卷10의 ‘命禮曹參判李純之·副正金石梯議定日月交食推步法’¹⁴⁾ 云云한 記錄에 의하면 바로 世祖 3年(1457) 丁丑 12月 24日이었다. 이와 같이 下命을 받은 後 兩人이 著述해서 올리니 王이 親히 筆削하여 完成을 보게하고 序를 쓰게 하였는데, 그 때가 바로 翌月인 同王 4年(1458) 正月이었다. 그 책의 刊行年에 관하여는 具體的인 記錄이 傳해지고 있지 않지만 그 序가 마련된 무렵에서 數個月 以內에 넉넉히 刊行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 ‘交食推步法假令’의 大文을 적은 鑄字로 바로 同年 7月에도 ‘易學啓蒙要解’의 大文을 적게 하여 그 다음달인 8월에 頒賜하였는데, 이 兩本을 比較해 보면 이 책의 著作成立이 앞섰고 刊行에 있어서도 이 책이 월등 많은 數의 鑄字로 印出되었으면서도 補字가 없고 매우 精巧롭게 印刷되었기 때문이다.

III

1973年 여름에 正音文庫의 稀貴한 典籍을 두루 調查하고 있었던 무렵의 일이다. 그 主人 李謙魯氏께서 처음보는 큰 鑄字로 大文을 적은 ‘易

13) ‘今我主上殿下 撥亂反正 繼承大統 崇儒重道 訓兵練卒 治具畢張 教化大行 一日謂臣純之曰 算法居六藝之一 在學者所當習 而今則不然 雖宿儒老師 滔滔不知 其中日月交食天變之大者 人皆見之而不知其推步之法 予常笑學業之不精 今欲於天文·地理·醫藥·卜筮·凡諸理數之書 悉皆作指南 頒行於世 使人無不學也 又況曆法 乃家業乎 雖子世子 亦不可不學’ 參照.

14) 世祖實錄 卷10, 3年丁丑 12月甲寅條. 國朝寶鑑 世祖朝1 丁丑2年 12月 條.

陽曆初起西南甚於正南復於東南
 陰曆初起西北甚於正北復於東北
 食八分已上初起正西復於正東此地

之而論

假令丁卯年八月朔日食分秒二三分一在八分

已上故初起正西復於正東

日出入帶食之分

其日日出入分以日出全圭此日則一分爲日八分在初虧

已上食甚已下爲帶食各以食甚分

正統十二年丁卯八月朔食

天正冬至

置所求距筭以歲實三百六十五乘之

爲中積加氣應九萬五千八百七十五爲通積滿旬周

去之不盡以日周一約之爲日不六十

滿爲分其日命甲子筭外即天正冬

至日及分

假令求正統十二年丁卯天正冬至者置距筭

三由正統九年歲次甲子爲元朔今丁卯年以

圖 1 大字 戊寅字 中·小字 甲寅字 (交食推步法假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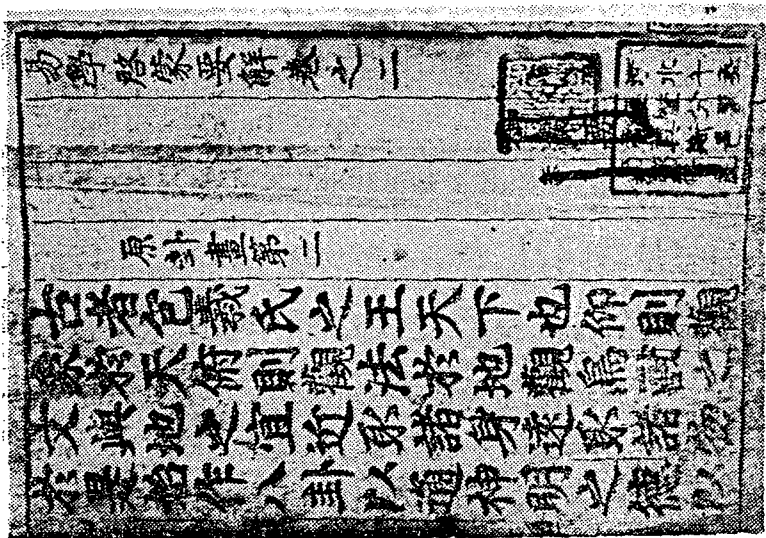


圖 2 大字 戊寅字 中·小字 甲寅字 (易學啓蒙要解)

以在土主之於若如區國則頃如壯方
 見於陽消長火其一曰心也日
 二曰月一曰水一曰火一曰風一曰
 地安排然亦莫非自然之理自冬至
 夏至為順蓋與前造象者相反者
 立而夏升口之不自夏至至之為
 逆蓋與前造象者同其生初時有
 兌居右不固蓋後中而分其初時
 右之於陰消有五句矣考其初時
 ○兌居左其曰卦圖於生只氣攝
 自乾一至坤八六十四卦皆用一
 而而生去建六生出數河連加故曰
 逆數也非交一轉過而為聖圖
 圖亦十四卦交之竟也一轉
 既成之後也却於中間數不從
 而變乘四卦以至於終皆得其

又曰坎離者陰陽之限也故確當寅坎當
 申兩數常踰之者陰陽之濫也然用數不
 過乎中也此更宜思解當卯坎當酉但
 坤為子半可見矣

西山蔡氏曰此論陰陽往來皆以
 不截然為陰為陽又以坎離兩言
 當於坎中當則然離之所生已起於
 坎之中所生已起於甲矣
 子謂離當寅坎當申也坤當子半
 曰坎離陰陽之限者就寅申而言也
 時論之春為陽而始於寅是離當寅

圖3 細小字 小·中字 甲寅字(易學啟蒙要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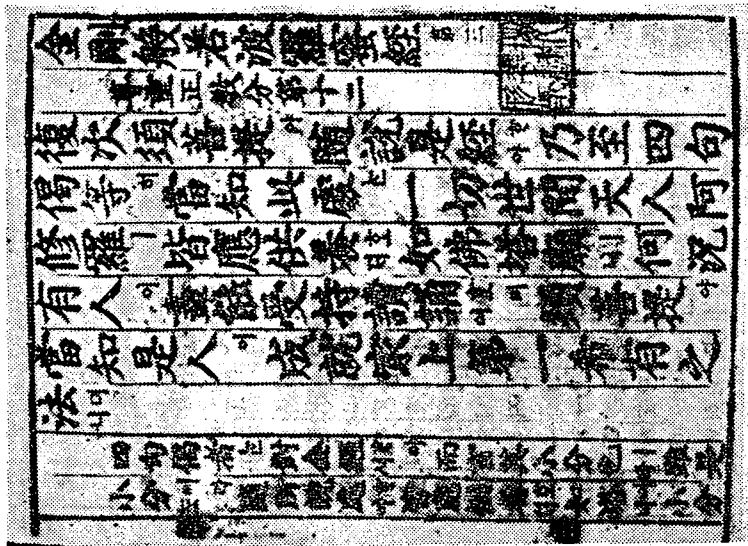


圖 5 大字 丁丑字 中·小字 乙亥字 (金剛經三家解)



圖 4 大字 丙辰字 中·小字 甲寅字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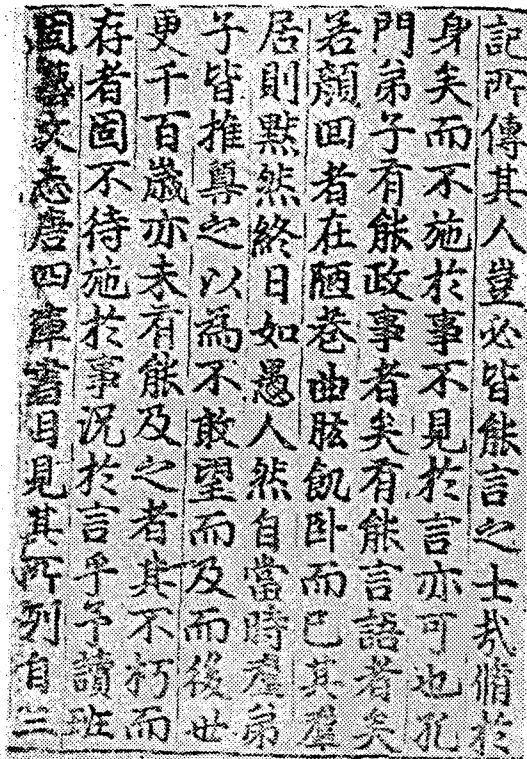


圖 6 庚午字(古文眞寶大全)

學啓蒙要解' 卷第1·2

零本 2冊을 最近에 入收하였다고 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 공교롭게도 그런 말이 있는지 얼마 아니되어 趙炳舜氏로부터도 同書의 後半部에 該當하는 卷第3·4 1冊을 入收하였다는 連絡을 받았다. 그야말로 錦上添花格의 一大 喜消息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기별이 있자, 바로 實查하는 機會를 가졌음은 물론, 그 뒤 李謙魯氏께서는 研究期間中 그 貴重本을 貸

出해 주시는 特惠를 베풀어 주시었고 또 趙炳舜氏께서도 여러 차례 調査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주셔서 兩本을 比較檢討하는데 있어서 餘裕있는 時間을 가졌다. 紙面을 빌어 우선 이 두 분에게 깊은 謝意를 표한다.

이 兩本은 다름 아닌 바로 '交食推步法假令' 大文을 찍은 鑄字로 大字를 찍고, 中·小字는 初鑄甲寅字로 찍어낸 同版의 鑄字本인데, 그것이 요행히도 거의 때를 같이하여 두 사람에게 入收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所藏이 分帙되어 去來된 것이 아니고 쉰려 다른 두 사람의

藏本이었는데, 그것이 본시 몇 家門을 거쳐 傳藏¹⁵⁾되어 오던 中 一部가 湮沒 또는 闕失되어 일찌기 重刊의 木板本으로 대신 채운 것이 각각 現藏者에게로 들어 온 것이다. 이렇듯 이 典籍이 生産된 後 주요곡절의 經路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은 이 現藏本이 합쳐져서 卷第1~4 3冊인 初刊 完帙의 鑄字本이 되는 點에 있다. 다만 李謙魯氏 所藏의 卷第1 앞의 御製序文과 趙炳舜氏 所藏의 卷第3 卷首의 前半葉만이 缺落되었을 뿐 그 外의 紙葉은 그 間 保存이 잘 되어 狀態가 良好하다. 7個餘載에 걸쳐 宿願의 對象이 되었던 問題의 大字로 찍은 또 하나의 새로운 初刊 完帙의 鑄字本이 뜻밖에도 거의 때를 같이하여 나타났으니, 실로 대견한 수확이며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本書는 朱熹가 엮은 '易學啓蒙'의 精微深奧한 語意를 理解하기 쉽게 풀이하여 鑄印한 것에 系하며, 그 主要한 形態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匡郭이 세로 25cm 가로 17cm의 四周單邊이고, 有界에 每半葉 8行 每行列 大字 13字 中字 17字 註雙行 間混 單行이며, 黑口와 上下內向黑魚尾가 한 雙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活字에 있어서 大字는 圖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交食推步法假令'의 大文을 찍은 鑄字와 같고, 中·小字는 初鑄甲寅字 그리고 小字 아래의 細註를 찍은 最小의 活字(圖3: 參照)는 그 數量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別途로 만든 活字이다. 그 最小의 活字는 '北' '為' '兌' '以' 등 글자의 字體를 보면 大字와 비슷한 點에서 이 책을 찍어내기 위해 새로이 만든 活字임을 짐작케 한다.

- 15) 李謙魯氏 所藏本 卷第1·2 首葉下端에는 印記가 있는데 그 중 먼저 찍은 것으로 보이는 2個의 印章은 鮮明치 않아 鄭某氏만을 알 수 있고, 그 뒤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印章은 '趙氏穆士敬章'이다. 그리고 卷第2의 表紙 裏面에는 '月川書堂'의 朱印도 있다. 趙穆은 中宗19年(1524)에 태어나서 宣祖39年(1606)에 歿한 이로서, 月川은 그의 堂號이고 士敬은 字이다. 본시 鄭某氏의 所藏本이 趙穆의 所有로 移管·傳來되어 오던 것이 그 뒤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으로 李謙魯氏에게 入收된 것이다. 한편 趙炳舜氏 所藏本에는 아무런 印記가 없어 그 傳來를 자세히 밝힐 수 없다.

卷第1의 첫머리에는 ‘親爲序 以弁其卷曰’¹⁶⁾, ‘御製序文曰’¹⁷⁾ 또는 ‘卷首世祖御製序 一葉則八行 行十三字’¹⁸⁾와 같이 世祖의 御製序文 一葉이 있음을 記錄에 의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本書에는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淳熙丙午(1186) 莫春既望에 雲臺眞逸이 手記한 2葉의 甲寅字 中字 所印의 序文이 首葉을 차지하고 있다. 이 序에서 말하는 雲臺眞逸은 本書의 原撰者인 朱文公 熹를 뜻함은 물론이다¹⁹⁾. 그 原序 앞의 下端에는 甲寅字 中字 所印의 ‘御製要解’와 次行 下端에 역시 同鑄字 小字 所印의 ‘奉教補解’가 있는데, 이것이 먹으로 抹消되어지고 있다. 그 ‘御製要解’와 ‘奉教補解’는 各卷次의 머리에도 또한 印刷되어지고 있는데, 그 中 卷第1·2의 것은 抹消되고 있으나, 본시 他所藏이었던 卷第3·4에는 抹消시킨 痕跡이 없다. 그리고 卷第1 首葉 上邊 위의 書眉 右側에는 ‘校正’의 朱印이 捺印되어 있다. 各卷의 內容을 全般에 걸쳐 調査해 보니 朱 또는 墨으로 文章에 傍點 句讀點 括弧 등의 符號와 書眉 또는 紙葉의 餘白에 註釋 등을 加한 것이 있다. 그 中에는 뒤에 讀書子가 加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적지 않으며 특히 卷第3·4의 1冊이 그러하다. 誤字를 바로 잡고 一部 文字를 墨으로 抹消하였으며 또 間間히 補解를 追記한 것은 卷第1·2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면 이들 各卷이 同版의 鑄字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中 卷第1·2의 2冊만이 校正用의 零本임을 알 수 있다. 本書는 鑄字印本이면서도 各卷의 紙葉中에는 木板으로 찍어낸 것이 間混되고 있다. 이를테면 卷第1의 ‘本圖書第一’의 ‘河圖’와 ‘洛書’를 들 수 있다. 이 紙葉은 그림이 들어 있기 때문에 必要한 文字를 大·中·小字의 鑄字로 植字·組版하여 찍어낸 다음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覆刻해 낸 것이다. 혹자는 이 紙

16) 國朝寶鑑 世祖朝1 戊寅3年秋 8月條.

17)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

18)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서울, 寶蓮閣, 1968. p. 274.

19) 本書 雲臺眞逸手記의 補解인 ‘時朱文公主管臺州崇道觀秩滿復巧祠拜華州雲臺之命 故稱雲臺眞逸’ 參照.

葉의 글자를 보고 本書의 鑑定에 異見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것은 活字本과 그 覆刻本의 識別이 서투른 데서 온 誤見임을 指摘해 둔다. 이러한 式으로 覆刻하여 찍어낸 紙葉은 그 외에도 卷第2의 '伏羲八卦圖', '伏羲六十四卦圖', '文王八卦圖' 등이 있다. 그러나 卷第4의 '玉齋胡氏通釋附圖'에는 '伏羲則河圖以作易圖', '大禹則洛書以作範圍', '先天八卦合洛書數圖', '後天八卦合河圖數圖', '伏羲六十四卦方圖', '邵子天地四象圖', '朱子天地四象圖', '掛扞過牒總圖', '近世撰著後二變不掛圖' 등 도합 10圖가 실려 있는데, 이것들은 組版한 後 覆刻한 것이 아니라 본시 別途로 板下書를 마련하여 木板에 새겨서 찍어낸 것이다. 다만 그 끝의 10圖에 관한 '右十圖附見于此 初學得之 以明篇內本文之義 亦庶幾乎易見云'의 2行 後說만이 別紙에 실린 文章이기 때문에 바로 甲寅字로 植字·組版하여 찍어낸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卷第4의 末尾에는 崔恒이 世祖 4年(1458) 7月上辭에 쓴 '易學啓蒙要解後序'가 張皇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해 這問의 編撰 및 刊事情을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위에서 本書의 形態書誌事項을 대략 記述하였으나, 그 中 重要な 事項은 다음과 같은 諸問題의 考證과 그 究明일 것이다.

첫번째로 重要な 問題는 本書의 大文 所印의 鑄字가 前揭한 '交食推步法假令'의 大文 所印의 그것과 과연 同一한가의 與否에 대한 考證이다.

本書에 나타나는 大字는 '交食推步法假令'에 비해 그 數가 얼마 되지 않으며 全卷을 통해 볼 때 不過 數行의 大字가 들어 있는 紙葉을 합해 봐도 도합 10餘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印出의 精巧度도 그만 못하고 墨色의 濃薄差가 甚하여 희미한 것이 많은 편이며 補字도 보인다. 그렇지만 같은 大字에 대하여 그 字樣을 살펴볼 때 圖1과 圖2의 '天' '以' '之' '為' '通' '於' '八' '下' 등 諸字의 比較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交食推步法假令'의 그것과 同一함을 惝忽으로 鑑識할 수 있다. 그 正確한 考證을 위해 兩本에서 同一한 特定字의 크기를 測定하

여 比較해 보아도 아래와 같이 兩者가 全혀 同一하다.

字 區 分	交 食 推 步 法 假 令		易 學 啓 蒙 要 解	
	세로 (cm)	가로 (cm)	세로 (cm)	가로 (cm)
正	1.4	1.8	세로	가로 共히 左와 同一함
為	1.8(약)	1.9		"
之	1.4	1.8		"
以	1.7	1.8		"
北	1.5	1.9		"
南	1.7	1.7		"
不	1.4	1.8		"
東	1.7(강)	1.7		"
五	1.4	1.9		"
於	1.6(강)	1.9(약)		"
下	1.6	1.8		"
三	1.2	1.9		"
萬	1.7	1.8(약)		"
通	1.9(약)	1.9(약)		"
天	1.5	1.9		"
氣	1.8	1.9		"
出	1.5	1.7		"
所	1.4	1.8		"

또한 그 字樣과 크기를 더욱 精密하게 對照해 보기 위해, 위에서 든 特定大字를 한 책에서 얇은 透明紙를 놓고 正確하게 影寫하여 다른 책의 該當大字 위에 重疊시켜 透視해 보아도 兩者가 全혀 同一하다.

以上の 方法에 의해 本書의 大文을 찍은 鑄字가 ‘交食推步法假令’의 大文을 찍은 그것과 全혀 同一함이 뚜렷하게 立證되었으리라 믿어진다.

두번째로 重要的 것은 本要解의 成立·刊行 및 校正에 관한 問題의 考察이다. 그 著作의 成立은 世祖의 潛邸時로 遡及한다. 그 動機는 다른 文獻에 紹介된 御製序와²⁰⁾ 崔恒의 要解後序에²¹⁾ 의해 알 수 있듯이,

20) 國朝寶鑑 世祖朝 戊寅 3年秋 8月條.

21) 世祖 4年(1458)初刊 鑄字本 崔恒序.

그가 潛邸로 있었을 때 易에 관하여 問議하는 이가 있는 데서 因緣되었다. 그는 禮樂·兵陣·醫卜의 理致가 모두 易에서 根源한 것임을 알았고, 그 易에의 길이 또한 朱子の '易學啓蒙'에 잘 갖추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學者의 指南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語意가 워낙 精微深奧해서 初學 또는 凡學으로서의 理解하고 깨닫기가 어려웠던지라 마침내 친히 要解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要解 自體가 完全하지 못하여 即位後 2次에 걸쳐 補解를 시켰고 刊行도 또한 그에 따라 두 차례나 實施됐다. 그 中 하나가 바로

‘上御舍元殿 召臣及知中樞院事臣金鈞·兵曹參議臣韓繼禧 若曰朱子易學啓蒙一書誠有功於易 而學者之指南也 然而語義精深 有非初學所能理會 予嘗略著註解 庶學者易以研究耳 爾等校正如或未盡且可增解 臣等叨承命得窺涯涘 謹就讎校 間亦竊附臆見補解一二語 以進迺賜名曰易學啓蒙要解 令鑄字所印之 仍命臣恒鉉之…… 天順二年(世祖4, 1458) 戊寅秋七月上濬……工曹判書修文殿提學同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寧城君臣崔恒拜手稽首謹序’

와 같이 崔恒 金鈞 韓繼禧등이 校正·補解하여 世祖 4年(1458) 7月上濬頃 鑄印에 부친 것에 該當하며, 이것이 그 다음달인 8月 26日에

‘新印易學啓蒙要解 賜文臣及成均館儒生²²⁾’

과 같이 新印되자 바로 文臣과 成均館의 學生들에게 널리 頒賜되었다.

다른 하나는 世祖가 그 뒤 崔恒과 韓繼禧에게 校正·增註할 것을 또 다시 下命하여 同王 12年(1466) 2月에 刊行케 한 것에 該當한다. 그 再下命時期는 崔恒이 左參贊 그리고 韓繼禧가 吏曹判書의 職에 각각 있었던 무렵이다. 崔恒은 世祖 10年(1464) 甲申 12月 19日에 左參贊에 任命되었고²³⁾, 韓繼禧는 同王 11年(1465) 乙酉 3月 9日에 姜希孟과 함께 圓覺經을 國譯한 功으로 吏曹判書에 除授되었으나²⁴⁾, 그 具體的인 再下命

22) 世祖實錄 卷13, 4年戊寅 8月辛巳條.

23) 上揭書 卷34, 10年甲申 12月戊戌條.

24) 上揭書 卷35, 11年乙酉 3月丙辰條.

時期는 世祖 11年(1465) 3月 9日 以後가 된다. 이러한 這問의 事情은 重刊 木板本 所收의 成化 2年(世祖 12, 1466) 丙戌 2月上 滸 崔恒 再書의 ‘易學啓蒙要解跋’에

‘一日 殿下召臣恒及吏曹判書臣韓繼禧 若曰朱子易學啓蒙一書誠有功於易 而學者之指南也 然語義精深 有非初學所能理會 予嘗偶因問易者 略著要解 爾等校正如或未盡且可增註 臣等退 與中樞府知事臣金國光·戶曹判書臣盧思愼·工曹參判臣丘從直·世子侍講院輔德臣鄭自英·宗簿寺僉正臣鄭蘭宗·成均館直講臣兪希益·兵曹正郎臣魚世恭·典醫監教授臣崔自濱·兵曹佐郎臣兪鎭 謹就讎校 間附臆見補解一二語 以進迺命臣紘之 成化二年(世祖12, 1466) 丙戌二月上 滸行議政府左參贊兼世子侍講院貳師兵曹判書成均館知事藝文館大提學春秋館知事寧城君臣崔恒拜手稽首謹跋’

云云한 것에 의해 알 수 있다. 이 때의 校正·增註는 一次 때보다 더욱 愼重과 正確을 期하기 위해 金國光·盧思愼·丘從直·鄭自英·鄭蘭宗·兪希益·魚世恭·崔自濱·兪鎭등 有能한 文士를 대거 參與시키고 있음이 注目的 對象이 된다.

위에서 살펴 본 것 中 前者가 바로 여기서 다루려는 初刊의 鑄字本에 該當하고, 後者는 重刊의 木板本에 該當한다. 그런데 위에서 前者의 初刊 鑄字本 中 卷第1·2 2冊은 校正本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初刊 初刷時의 校正本이나 그렇지 않으면 後者의 重刊 木板本을 위한 校正本이나에 대하여는 여기서 반드시 밝혀 놓고 넘어가야 할 問題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이 鑄字本이 發見되던 當時 初刊 初刷時의 校正本이라고 一般이 잘못 理解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解明을 위해서는 鑄字本 卷第1·2인 李氏本과 卷第3·4인 趙氏本 그리고 重刊의 木板本을 서로 比較對照해 보는 일이 先行되어야 한다.

우선 校正本인 李氏本과 非校正本인 趙氏本²⁵⁾을 比較하여 그 두드러

25) 趙氏本도 朱墨에 의한 句讀點, 墨書에 의한 括弧表示, 紙葉의 書眉와 餘白에 註解한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後世의 所藏者 또는 閱讀者가 한 것이다.

진 差異點을 살펴보면, 첫째, 前者에서 墨으로 抹消시킨 글자가 後者에서 抹消되지 않고 그대로 植字되어 있다. 그 一例로서 各卷의 머리에 있는 '御製要解'와 '奉教補解'를 들 수 있다. 둘째, 前者에 새로이 追記된 補解등이 後者에서 전혀 바로 잡혀지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兩者가 다같이 校正 以前の 狀態 그대로이다. 萬一 前者가 初刊 初刷時의 校正本이라면 校正印이 없는 後者는 校正을 거친 뒤에 찍혀진 後刷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당히 誤脫이 바로 잡혀지는 조처가 取해 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重刊本과 對照하여 보면 첫째, 여기에는 李氏本의 墨消된 것 이를테면 前掲의 '御製要解' '奉教補註'가 校正된 그대로 削除되고, 追記한 補解 이를테면 卷第3의 8張 끝의 '補解×者偶之……'라든가, 同卷第25張 끝의 '補解 掛當作卦'등도 그대로 기워지고 있으며, 墨으로 括弧한 單行의 細註가 한결같이 雙行으로 고쳐지고 있다. 둘째, 初刊의 鑄字本에 본시 있었던 '御製序'의 紙張을 李氏의 校正本에서 '御製要解'를 墨消시킴과 동시에 빼어 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重刊本에서도 除外되고 있다. 이러한 對照로서 얻어진 結果는 李氏의 校正本은 初刊 初刷時 同版의 後刷本을 위한 誤脫의 校正이 아니라 重刊할 때 그 重刊本의 誤脫을 바로 잡고 補完과 修正을 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이 分明하며, 그 時期는 重刊本의 跋에 列記된 여러 文士들에 의해 世祖 11年(1465) 3月 9日 以後에 이루어진 것이 또한 明白한 點이다.

以上에서 李·趙 兩氏의 '易學啓蒙要解'의 大文이 바로 '交食推步法 假令'의 大文을 적은 鑄字에 의해 印出된 것이며, 그것이 世祖 때 一次로 校正·補解되어 同王 4年(1458)에 初刊된 있음을 考證하였다. 그리고 그 中 李氏本에서 보는 校正은 一般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初刊 初刷時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世祖 12年(1466) 2月頃에 上梓된 重刊 補解本의 內容을 집고 바로잡기 위해 同王 11年(1465) 3月 9日 以後에 이루어졌음도 아울러 밝혀 놓았다.

IV

鑄字 및 鑄字本에 관한 研究라면 으레 밝혀 놓아야 할 一定한 基準이 있다. 萬一 그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도 鑄造年에 근거한 鑄字의 名稱, 字本 및 刊本の 實例만이라도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條件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 본 3種의 鑄字本을 찍어낸 活字는 그 字名에 관한 記錄조차 전혀 未傳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그 鑄字에 관한 보다 具體的인 研究는 後日을 기다려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한편 그것이 거의 기약할 수 없는 일이고 또 關係資料가 이 以上 더 나올 것같이 여겨지지도 않으므로 우선은 그 間 調査한 바에 근거하여 本藁를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鑄字의 名稱을 흔히 字名으로 略稱하고 있다. 그 字名은 活字를 鑄造한 해의 干支, 機關名, 字本을 쓴 人名, 字體 및 其他 特殊한 名稱등을 따서 命名하고 있지만, 그 中 普遍的인 것은 鑄造年의 干支를 따서 命名한 稱呼가 된다. 특히 壬辰倭亂以前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兩本의 大文을 찍은 鑄字의 名稱도 鑄造年을 밝혀내서 그 해의 干支를 冠하여 命名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 鑄造年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筆者는 다음과 같이 여러 側面에서 多角的인 檢討와 研究를 進行시켜 보았다.

첫째, 華山書林主 故 李聖儀氏가 甲寅字 特大字를 찍은 御製書가 있다고 生前時에 늘 말씀하시던 點부터 檢討해 보았다. 그분은 그 鑄字를 研究中에 있으며 不遠 發表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시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他界하셨다. 따라서 그 鑄字로 찍어낸 책이 도대체 어떠한 御製인지 그 間 筆者에게는 늘 꺼림칙한 숙제의 對象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兩本도 그 序에서 言及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御製에 系하며²⁶⁾ 中·小字는 甲寅字로 적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 大字의 鑄造年代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부득불 甲寅字說부터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檢討해 본 結果 筆者는 그분의 말씀이 信憑性 없는 것이며 甲寅字에는 特大字가 鑄造되지 않았음을 確信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理由에서이다.

1) 周知하는 바와 같이 朝鮮王朝에서는 太宗 3年(1403)에 最初로 癸未字를 鑄造하였는데

‘其始鑄字樣 有未盡善者 印書者病其功不易就’²⁷⁾

와 같이 鑄造가 서투러서 字樣이 좋지 않고 또한 印刷하는데도 워낙 품이 들어 世宗 2年(1420)에 이를 改鑄하여 庚子字를 만들었다. 그 庚子字는 癸未字에 비해 ‘字樣極爲精緻’²⁸⁾하여 一日의 所印紙數가 倍加되었으나, 그러나 그것도

‘第恨字體纖密 難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²⁹⁾

와 같이 字體가 너무나도 작아 閱讀하기 어려워서 다시 큰 活字 즉 大字로 重鑄한 것이 바로 世宗 16年(1434) 7月 12日에 始事해서 그 다음 달에 完成을 본 20餘萬字의 甲寅字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鑄造史的인 觀點에 立脚하면 大字라는 것이 甲寅字를 鑄造할 때 登場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現在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中字를 일컬은데 지나지 않으며 여기서 究明코자 하는 바와 같은 特大의 活字가 아님을 알 수 있다. 換言하면 그러한 큰 鑄字가 그 當時까지는 鑄造되지 않았음이 分明하다.

26) ‘交食推步法假令’은 그 序에서 ‘世宗所製’라 했으나, 이것은 世宗이 우리 實情에 맞는 曆法の 制定을 重要한 帝王의 政으로 삼고 強力히 促進시켜서 그 기술을 잘게한데서 그와같이 일컬은 것이며, 其實은 李純之 등이 奉教撰한 것이다. ‘易學啓蒙要解’는 重刊 木板本부터 ‘御製要解’가 刪去되었으나 崔恒의 跋文에는 그것이 본시 世祖의 親製要解임을 밝혀주고 있다.

27) 永樂二十年(世宗 4, 1422)冬十月甲午 卞季良拜手稽首敬跋 參照.

28) 上揭跋 參照.

29) 宣德九年(世宗 16, 1434)九月日 金鑣拜手稽首敬跋 參照.

2) 朝鮮王朝에서 特大의 鑄字는 世宗 18年(1436)에 鉛鑄한 丙辰字가 最初이며, 그 鑄造事由는

‘其舊鑄字樣稍密 上慮春秋高則 難於觀覽 今晉陽大君臣孫書大字 新鑄之 以新字爲綱 舊字爲目’³⁰⁾

云云한 글에 밝혀지고 있다. 舊鑄字인 甲寅字의 字樣이 작기 때문에 高齡 老眼의 王을 위해 우리가 오늘날 일컫고 있는 바와 같은 大字를 이 때 비로소 始鑄했으니,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도 甲寅字에는 본시 特大字가 없음이 뒷받침 된다. 萬一 甲寅字에 特大의 活字가 있었다면 굳이 丙辰字를 新鑄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甲寅字에 特大의 活字가 없었기 때문에 世祖 3年(1457)에 刊行한 ‘金剛經五家解’도 註疏文은 中·小의 甲寅字, 大文은 丁丑字를 新鑄하여 印出했으며, 여기서 究明코자 하는 兩 鑄字本 역시 中·小字는 甲寅字 그리고 大字는 別途로 新鑄한 큰 鑄字로 찍어냈던 것이다.

3) 實際問題로서 世宗 16年(1434)以後의 朝鮮朝前期에 印出된 鑄字本을 國內는 물론 韓國의 典籍이 가장 豊富하게 秘藏된 日本의 各地에서 두루 調査해 본 結果로서도 아직껏 筆者는 甲寅字에 特大字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 혹자는 前揭한 ‘交食推步法假令’의 大字를 보고 庚午字의 大字가 아니냐는 見解를 表明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問題에 대해서도 또한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見解를 表明하는 근거로서는 1) 文宗即位年(1450)에 安平大君 瑅의 筆書를 字本으로 鑄成한 庚午字에 2種



크기의 鑄字가 있는데, 그 中 큰 것이 甲寅字의 中字보다 多少 크고 字劃이 굵기는하나 特大字에는 미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中字에 該當하며, 2) ‘交食推步法假令’의 大字中에는 이를테면 左圖의 諸字에서

30) 思政殿訓義資治通鑑 所收의 柳義孫序 參照.

볼수 있는 바와 같이 匪懈堂 璿의 筆意를 방불케 하는 것이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 根據가 매우 모호함을 우선 指摘해 둔다. 위의 理由中 두번째의 것이 重要的 것이 되는데, 兩者의 글자 全般에 걸쳐 그 運筆法을 면밀하게 檢討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問題의 大字는 晉體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鷗波松雪體의 筆意를 결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圖1·2 參照), 庚午字는 反對로 鷗波松雪體의 筆法을 바탕으로 하고³¹⁾ 이에 晉體의 筆意를 加味하여 匪懈堂나름으로서의 獨特한 筆法³²⁾을 나타낸준 것이라 여겨진다(圖6 參照). 다시 말하여 이 問題의 大字에는 文宗朝로부터 世祖朝에 이르는 鑄字 즉 庚午字 乙亥字 乙酉字 등에서 한창 流行되었던 鷗波松雪體의 筆意가 결드려진 것으로 보일뿐³³⁾, 그 글자의 바탕이 보여주는 運筆의 神韻은 庚午字體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問題의 大鑄字는 庚午字의 特大字가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 해주는 또 하나의 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援用할 수 있다.

首陽大君은 나이 어린 端宗의 王位를 篡奪하고자 그의 即位初부터 가진 計略을 꾸며 오던 中 端宗元年(1453) 10월에 當朝의 重臣 金宗瑞 皇

31) 成倪 撰 慵齋叢話 卷1 論筆法條에서는 '安平之書 專做子昂 而豪邁相上下 凜凜有飛動意'라 했고, 李匡師 撰 圓嶠書訣 後論에서도 '淸之 秀媚可愛 才氣最優 當與子昂相上下 而專用子昂法 未免入俗 且淸之 以貴公子 首倡批法 眩耀一世'라 하였듯이, 安平大君의 書體는 鷗波松雪體를 專做하였기 때문에 그에 못지 않게 豪邁한 筆意가 飛動하고 있으며 그로 因하여 當代를 자못 눈부시게 했다.

32) 李裕元 撰 林下筆記 卷33, 華東玉樛編 安平大君書를 보면 淸代 名筆家 覃溪翁氏가 匪懈堂의 絹本眞蹟을 鑑定하고 '批能以松雪手腕 運聖教序 筆意者 眞確論也'라 하였듯이, 鷗波松雪書法의 手腕으로서 聖教序의 書風 즉 王羲之의 晉體 筆意를 잘 살리고 있다고 讚歎하였다.

33) 上引한 李匡師 撰 圓嶠書訣 後論에서 '淸之 以貴公子 首倡此法(子昂法) 眩耀一世 由是 列朝御筆 皆用此法 遂成國俗'이라 하였듯이 安平大君이 鷗波松雪體를 專做하여 當代를 워낙 眩耀케 하였기 때문에, 御筆에 있어서 이 書法을 따랐음은 물론 文宗朝로부터 世祖朝에 이르는 鑄字에 있어서까지도 그 筆法을 適用시켰음.

甫仁 등을 죽이고, 自己와 事事件件 意見이 對立되어 온 아우 安平大君 瑠에게까지 손을 빼쳐 그의 아들 友直과 함께 체포하여 江華島로 押送³⁴⁾, 그곳에서 마침내 賜死케 하였다³⁵⁾.

이와같이 빚어진 極端的인 敵對感情은 瑠이 쓴 글자를 字本으로 鑄造한 庚午字까지도 世祖元年(1455)에 乙亥字를 鑄造할 때 改鑄·毀廢시켰던 것이다³⁶⁾. 이러한 這間의 사실에 立脚해 볼 때, 世祖 4年(1458)에 刊行된 兩鑄字本の 大文 所印의 活字를 庚午字의 特大字로 봄은 言語途斷인 것이다.

셋째, 淸芬室書目에 수록된 問題의 大字로 적은 ‘易學啓蒙要解’의 解題를 보면 그 大字를 ‘似世祖所書 鑄字方一·九攄’³⁷⁾로 言及하고 있어 注目케 한다.

世祖는 위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甲寅字를 新鑄할 때 不足字를 補書하였고 이어 丙辰字 및 丁丑字의 大字를 각각 親書하여 鑄成하였는데, 이들 字體를 살펴볼 때 그 모두가 서로 꼭 같지 않다. 丙辰字는 字劃을 바르게 근 晉體系의 楷書體로서 迫力이 없고 옆으로 퍼진 것이라면(圖4 參照), 丁丑字는 字劃에 筆力이 한결 躍動하고 있는 晉體系의 字體로서 丙辰字에 比하여 날카롭고 길쭉한 감을 준다(圖5 參照). 여기서 究明코자 하는 大字의 字體는 丙辰字와 丁丑字의 그것과 比較해 볼 때 書法의 본바탕에서 一脈相通하는 運筆의 神韻을 느끼게 하면서도 鷗波 松雪體의 筆意를 결들인 것이 그 特徵이다(圖 1·2 參照). 이와 같이 字體가 꼭 같지는 않지만 이들에서 一脈相通하는 運筆의 神韻이 느껴지는 點에서 筆者도 이 問題의 大字는 世祖의 글씨를 字本으로

34) 端宗實錄 卷8, 元年癸酉 10月癸巳條.

35) 上揭書 卷8, 元年癸酉 10月辛丑條.

36) 成俔 撰 慵齋叢話 卷7 活字條의 ‘文宗更鑄庚子字 命安平書之 名曰壬申字(庚午字) 乙亥年世祖改鑄壬申字(庚午字) 命姜希顏書之 名曰乙亥字 至今用之 云云 參照.

37)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서울, 寶蓮閣, 1968. p. 274.

鑄造했던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는 것이다. 世祖가 活字 鑄成을 위해 쓴 字本 4種이 모두 그 字體에 있어서 差異를 보여 주는 것은 아마도 그의 글씨가 達筆이어서 여러 書法을 自由自在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兩鑄字本の 大字가 世祖의 글씨를 字本으로 했을 법한 또 하나의 可能性은 그 두 책의 性格을 살펴 볼 때 한결 길게 해 준다. '交食推步法假令'은 그 序에서 '世宗所製交食推步法及算誦'³⁸⁾이라 하였듯이 父王 世宗이 우리 實情에 맞는 曆法의 制定을 막중한 帝王의 政으로 삼고 促進시킨 結果 그 기틀이 구축된 點에서 '所製'라 했고, 이를 世祖가 假令·註解케 한 後 親히 '審斷筆削定之'³⁹⁾하여 完成시켰으므로 因하여 '以聖繼聖 胎厥嘉猷於後世'⁴⁰⁾ 즉 聖으로 聖을 이어 이 아름다운 책을 後世에 끼치게 한 것이라고 지극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易學啓蒙 要解'는 世祖가 龍潛時부터 親히 要解한 것을 校正·補解케 하여 完成시킨 바로 王 自身の 親製에 屬하는 것이다⁴¹⁾. 이렇듯 兩書를 御製로 尊重視하고 있는 點에서 볼 때 글씨 쓰기를 좋아하는 世祖가 특별히 그 數가 많지 않은 大字의 字本을 親書해서 鑄造·刊行케 했을 可能性은 응당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네제, 이 問題의 大字는 본시 特定書籍을 印出하기 위해 鑄造된 것으로서 위의 兩鑄字本中 '交食推步法假令'의 印行에 先用되었으니, 그 天文曆象分野의 다른 書籍中에도 혹시 그 活字로 적어낸 것이 있는가의 與否 調査는 本鑄字의 鑄成時期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저으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朝鮮王朝初期까지도 唐의 '宣明曆'을 循用하였기 때문에 誤差가 甚해서 日官이 刻數를 自意로 加減하여 適當히 使用하였으며 太

38) '天順二年(世祖 4, 1458) 正月日李純之奉教序'에서 引用한 世祖의 말이다.

39) 上掲序.

40) 上掲序.

41) 成化二年(世祖 12, 1466) 二月上辭崔恒拜手稽首謹跋 參照.

宗朝에서는 元의 ‘授時曆’ 普及을 위해 諸曆志에 수록까지 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맞지 않아 行用되지 못하였다⁴²⁾. 그리하여 世宗元年(1419)에는 曆法の 釐正이 獻議되어⁴³⁾ 同王 5年(1423)에 ‘宣明曆’ ‘授時曆’ ‘步交會步中星曆’ 등 諸曆書의 差異가 校正되는 作業이 시작되었다⁴⁴⁾. 同王 15年(1433)에는 모든 儀象 晷漏의 機器와 天文曆法の 諸書를 빠짐없이 講究·鑿校·釐正케 하는 한편 우리의 實情에 맞는 曆法の 편찬까지 着手케 했다⁴⁵⁾. 그 業務에는 鄭麟趾 鄭欽之 鄭招 李純之 金淡 등이 關與하였으며, 그 中에서도 李純之와 金淡이 主動이 되어 促進시켜 왔다. 이들에 의해 鑿校·釐正·編撰되어 刊行된 曆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손꼽아야 할 것은 世宗26年(1444)에 刊行된 ‘七政算內·外篇’이다⁴⁶⁾. 그 中 內篇은 元의 ‘授時曆’과 明의 ‘大統曆通軌’를 參酌하여 誤差를 바로잡아서 우리에게 맞도록 엮어 낸 獨自의인 曆法이고, 外篇은 ‘回曆經通徑’과 ‘假令曆書’를 改定增補하여 엮은 것이다. 이러한 劃期的

42) 四餘繩度通軌 甲寅字本 卷末 所收의 正統九年(世宗 26, 1444) 七月日跋의 ‘宣明曆作於唐長慶壬寅 厥後改曆凡二十有五 差已久矣 而高麗尙遵用之 至忠宣王入侍元朝 始見授時曆經 乃得謄寫 以傳其書 雖存僅得曆日推定之法 而其餘則未之知也 國初循用宣明曆 其差益甚 日官率意加減刻數 以牽合於天 尤爲無據 我太宗朝 蒙賜元史授時本經 載諸曆志 然亦未及行用’ 參照.

43) 上揭跋의 ‘殿下即位之二年己亥(世宗元, 1419) 領書雲觀事臣柳廷顯獻議 令儒臣釐正曆法 殿下嘉納其言 以爲帝王之政 莫大於此特留宸念’ 參照.

44) 世宗實錄 卷19, 5年癸卯 2月辛酉條.

45) 諸家曆象集 卷末 所收의 正統十年(世宗 17, 1435) 三月日 李純之의 跋의 ‘宣德癸丑(世宗 15, 1433)秋 我殿下發於宸衷 凡諸儀象·晷漏之器·天文曆法之書 靡不講究 皆極精緻 在儀象則曰 大小簡儀·日星定時儀·渾儀及渾象也在晷漏則曰 天平日晷·懸珠日晷·定南日晷·仰釜日晷·大小圭表及欽敬閣漏·報漏閣漏·行漏也 天文 則於七政列舍中外官八宿去極度分皆測之 又將古今天文圖 參別同異 測定取正 而其二十八宿度分及十二次宿度 一依授時曆修改以刊石本矣 曆法 則於大明曆·授時曆·回曆·通軌·通徑諸書 並加鑿校 且撰七政算內外篇矣 然猶未也 又命臣搜索其天文曆法·儀象·晷漏書之雜出於傳記者 刪其重複 取其切要 分門類聚 作爲一帙 以便觀覽 苟因是書 而究其理則思過半矣 尤以見殿下敬天勤民之政 無所不用其極也’ 參照.

46) 經國大典 禮典에 의하면 ‘七政算內·外篇’이 陰陽科初·覆試의 教材로 指定되어 있다.

인 曆法의 編撰을 前後하여 이 分野의 整理와 研究가 多方面에 걸쳐 이루어져서 많은 曆書가 校正 또는 著述되어 刊行됐다. 즉 '授時曆經' '大統曆日通軌' '太陽通軌' '太陰通軌' '交食通軌' '五星通軌' '四餘纏度通軌' '回回曆經' '西域曆書' '日月食假令' '月五星凌犯'⁴⁷⁾ '太陽通徑' '重修大明曆' '庚午元曆' '授時曆議' 등이 모두 校正되고⁴⁸⁾, 諸傳에 記載된 歷代 文天曆法·儀象·晷漏의 書가 諸家曆象集⁴⁹⁾으로 편집되어 모두 鑄字所에서 印出되었다. 다만 '通軌內步中星' 1篇만이 本經舊文과 같고 增損된 바 없으므로 印出하지 않았음을 밝혀 주고 있다⁵⁰⁾. 그 以後에 刊行된 것으로서 世宗 29年(1447) 丁卯 8월에 엮은 '重修大明曆丁卯日食月食假令'과 '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 등이 있고⁵¹⁾, 刊行年 未詳의 '授時曆立成' '授時曆捷法立成' 등도 世傳되고 있다⁵²⁾. 물론 이것 以外에도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대체로 이것들이 그 主된 것이며, 그 中에서 現存하는 13種⁵³⁾을 奎章閣 所藏에서 李相殷係長의 各별한 協助를

47) '宣德十年月五星凌犯'이다.

48) 四餘纏度通軌 甲寅字本 卷末 所收의 前引 正統九年(世宗 26, 1444) 七月 日跋 參照.

49) 上揭跋 및 諸家曆象集 李純之跋 參照.

50) 四餘纏度通軌 甲寅字本 卷末 所收跋의 '獨通軌內步中星一篇 全因本經舊文 而無所增損 故不在印例' 參照.

51) 洪以燮, 朝鮮科學史, 서울, 正音社, 1946. p. 175.

52)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附設東亞文化研究所 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1965. 子部 天文類 p. 542.

53) 上揭書에 記載된 次序대로 그 書名과 書誌事項을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庚午元曆,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刊 甲寅字本.

交食通軌,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刊 甲寅字本.

大統曆日通軌,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刊 甲寅字本.

四餘纏度通軌, 李純之 金淡 受命編. 世宗 26年(1444)刊 甲寅字本.

宣德十年月五星凌犯,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刊 甲寅字本.

授時曆立成, 王恂(明)等 奉勅撰. 世宗朝刊 甲寅字本.

授時曆捷法立成, 姜保 編. 世宗朝刊 甲寅字本.

五星通軌,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 甲寅字本.

重修大明曆,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刊 甲寅字本.

七政算內篇, 李純之 金淡 受命編. 世宗 26年(1444)刊 甲寅字本.

七政算外篇, 李純之 金淡 受命編. 世宗 26年(1444)刊 甲寅字本

언어 모두 調査해 보니 世宗年間에 印出된 初鑄甲寅字本들이다. 다만 世祖 4年(1458)에 刊行된 ‘交食推步法假令’만이 中·小字는 初鑄甲寅字이고 大字는 이 問題의 큰 活字로 찍혀지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世宗 29年(1447)丁卯의 日食 月食 觀測을 거쳐 日月交食의 計算法測의 기틀이 구축되었고 그 法測을 외우기 편하게 算法歌詩까지 마련하였던 것이나, 그러나 完全한 마무리 作業이 미쳐 이루어지지 못해 刊行은 실천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世祖가 登極한 3年(1457) 12월에 그에 대한 議論 決定이 下命되어 翌月인 同王4年(1458)正月에 假令과 註解의 告成을 보게 했고 이어 刊行廣布케 함으로써 비로소 一般化시켰으며, 그 결과 陰陽科 初·覆試의 教材로 쓰일 수 있게 됐던 것이다⁵⁴⁾.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던 여기서 究明코자 하는 問題의 大字는 世祖 4年(1458)에 始鑄된 것이며, 그 最初의 印本이 바로 ‘交食推步法假令’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V

以上の 考察을 통하여 보건데, 이 問題의 大字는 世祖 3年(1457) 12月 24일에 禮曹參判 李純之와 司宰副正 金石梯에게 議定을 命하여 翌 4年(1458) 正月에 完成을 보게한 ‘交食推步法假令’ 中 소위 世宗所製라고 일컫는 大文의 印出을 위해 鑄造된 듯 하다. 그 活字가 鑄造된 時期는 이 책이 告成된 世祖 4年 正月부터 數個月以內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鑄成에는 本書의 假令 및 註解를 擔當하였던 李純之가 또한 直接 關與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까닭은 純之 自身이 世宗 16年(1434)에 甲寅字를 鑄造할 때도 그 業務를 直接 監掌했던 官

太陽通軌,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刊 甲寅字本.

太陰通軌,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世宗朝刊 甲寅字本.

54) 經國大典 禮典 諸科 陰陽科初·覆試의 天文學에 있어서 前引한 ‘七政算內·外篇’과 함께 本 ‘交食推步法假令’이 教材로 指定되어 있다.

吏中の 한 사람이며⁵⁵⁾, 이번의 일은 世祖의 特命에 의한 것이자 自己 自身으로서도 學生의 課業으로 研究해 온 바를 마무리하는 重要한 일이므로 그가 이미 經驗했던 鑄造에의 知識과 技術은 물론 온갖 誠意를 이 事業에 쏟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萬一 이러한 推理가 옳은 것이라면 이 活字의 鑄成은 물론 그 印書까지도 그가 工曹參判의 職에서 謝恩使로 差出되어 明에 派遣되었던 世祖 4年 3月 13日⁵⁶⁾ 까지는 정녕 完了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근거로서 바로 몇달 前인 世祖 3年(1457) 9月 下辭에 世祖가 그달 初2日에 天逝한 儲宮 懿敬世子(追尊 德宗)의 冥福을 빌기 위해 많은 佛經의 繕寫와 刊行을 命하였으며 그 중에도 王 自身이 親書한 글씨를 字本으로 丁丑字를 新鑄하여 '金剛經五家解' 百件을 印出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⁵⁷⁾, 그 新鑄 · 印書가 별로 어려움 없이 몇달 안으로 무난히 畢役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 經驗은 곧 이어 이 問題의 大字 鑄成 및 그 印書에 그대로 適用되었을 것이니, 이것 또한 數個月 以內로 무난히 功訖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字本은 世祖의 書法에서 볼 수 있는 運筆의 神韻이 느껴지는 點에서 世祖의 親書일 可能性이 길다고 言及하였다.

'易學啓蒙要解'는 世祖가 龍潛時부터 親히 要解해 온 것을 完成시킨 이른바 御製의 性格을 띤 것인데다가 大字의 數 自體가 얼마되지 않으며 또 그것도 天文曆象에 該當되는 文字가 주로 많기 때문에 '交食推步法假令'을 적어 냈던 活字에 若干의 補字를 더하여 손쉽게 印出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刊行은 편찬이 世祖 4年(1458) 7월에 告完되자 바로 印書되어 그 다음달인 8月 26일에 文臣 및 成均館儒生들에게 널리 頒賜

55) 宣德九年(世宗 16, 1434)九月日 金鑣甲寅字跋의

'仍命監其事集賢殿直提學臣金墩…… 奉常注簿臣李純之…… 等掌之' 參照.

56) 世祖實錄 卷12, 4年戊寅3月庚子條.

57) 世祖3年(1457)刊의 丁丑字本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所收의 姜孟卿 · 申叔舟 · 韓明澮 · 曹錫文 · 韓繼美 · 金守溫 · 韓繼禧 · 任元濬 등 入侍高官의 諸跋 參照.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 問題의 큰 鑄字를 世祖 4年(1458) 戊寅에 鑄成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 干支를 따서 戊寅字로 命名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筆者 自身도 계속적으로 檢討해 보겠거니와, 先學과 同學의 精銳로운 見解가 보태지게 되길 거듭 바란다. (1974. 3. 20 稿成)

A Study of the Books Printed with a Newly Found Font, Tentatively Named "Muin-ja"

by Hye-bong Chon*

The author's thesis is that the types used for the large-sized characters seen in the two metal type-printed books "Kyosik chubopop karyong" (交食推步法假令) and "Yok-hak kemong yohae" (易學啓蒙要解) both printed in 1458 belong to a new metal font hitherto unnamed. The former book was compiled by Yi Sun-ji (李純之) and Kim Sok-je (金石梯) in January of 1458 in accordance to King Sejo's order. A new font was created to be used for the large-sized characters of the book. Several months after completion of the compilation, the book was printed with mixed use of the new font and the Kabin-ja (甲寅字) for medium- and small-sized characters. The latter book had been written by King Sejo before his accession to the throne. Ascending the throne the king had his scholar-subjects examine the writing to correct it where necessary. The examination was completed in July of 1458 and printing was immediately done with the two fonts: the above-mentioned, new font for the large-sized letters and the Kabin-ja for the medium- and small-sized ones. The books were granted to the scholar-subjects and the students of the Sung Kyun Kwan Academy as a royal gift. The matrix seems to have been modeled after the calligraphy of King Sejo.

Because the new font was created to print the large-sized letters of the two books in 1458, it may be proper to name it "Muin-ja" using the "kanji" (干支) of the year. The author is happy to identify and include another font in the list of Korean movable types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ud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